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0년 5월호

통권 제 20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4월 교우소식

감 사

- ♣ 유연준 권사, 4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광원섭집사·한행자권사, 새벽기도 식사제공.
- ♣ 신순예권사, 부활절 계란 1,000개 기증.
- ♣ 한메남선교회, 특별새벽기도회 기념액자 500개 기증.
- ♣ 40일새벽기도회 소책자
황금석집사, 장은라·제갈희선·김소진 권사
- ♣ 이정섭장로·오군자권사, 25일(주일) 점심식사제공.
- ♣ 송숙자권사, 독거노인 내의 40벌 기증.

별 세

- ♣ 고 김겸웅권사(73세), 20일 별세 22일 장례

입 원

- ♣ 홍영자 권사, 중앙대 용산병원 425호.
- ♣ 신창우교우·김성숙집사, 백병원(1012,1011호)

출 국

- ♣ 민정홍권사, 미국 자녀방문차 14일 출국.

이 사

- ♣ 오병옥집사·김지현교우,
서초구 방배동 대림 아크로리버 102동 1501호

축 하

- ♣ 취임- 이효종원로장로, 학교법인 경신학원 이사장
- ♣ 승진- 김선영집사, 기아자동차 유럽법인장 전무이사
- ♣ 전시회- 김소진권사, 19일(월)~20일(화)
(사)한국화훼장식 장애우 교육협회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고객센터 1층)
- ♣ 득남- 송경엽·강봉남교우
(송재옥장로·계명의권사 차남)
- ♣ 득남- 배영수 교우(민정홍 명예권사 3녀)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회

"새로운 100년, 기도로 시작하자!"는 온 교우들의 다짐으로 시작한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회가 지난3일(토)에 마쳤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온 교우들이 마

지막 혼신을 다하여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동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은 288명의 교우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기쁨을 온 교회가 누릴 수 있었다.



1부 예배

지난 4일(주일) 오전9시에는 1부 예배가 새로운 형식으로 드러졌다. 지금까지 토요일 오후5시에 드렸던 1부예배가 이날부터 주일 오전9시로 옮기면서, 동시에 예전도 고전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에서 드러졌던 예전을 중심으로 안동교회에 맞는 예전을 만들어가고자 황영태 목사를 중심으로 교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참신한 예배였다. 매주 50-70명의 교우들이 "공간"이 있는 예배에서 한껏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 고 있다.

부활주일행사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안동교회의 부활주일은 참으로 기쁨의 날이었다. 오전9시에는 새로운 형식의 1부 예배를 드렸다. 10시부터는 예배당 입구에서 부활절달걀을 교우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약7000개 정도 삶아서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었다. 2부 예배에서의 성찬예식을 통하여 온 교우들은 부활의 기쁨, 그 절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예배 후, 지하 친교실에서 식탁의 교제를 하였고, 또한 윤보선 고택에서는 다과회가 있었다. 오후1시30분에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고인들을 추모하며 한식 합동추모예배를 추모의 벽에서 드렸다.



안동사랑방에 올라온 글(1)

최상의 아름다움

이 본 장르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제 2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안동교회에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면서 예비해 주신 주님의 크

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목상하며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동가족 모두 함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더욱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인 '섬기'; '섬기는 자세', '허락해 주신 은사의 사용', '종의 마음으로 최선의 섬김' 및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소서' 찬송과 함께 고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최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글이 문득 떠올라 올립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 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 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 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 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 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안동사랑방에 올랐은 글(2)

내가 경험한 특별새벽기도회

차은미 사모

새로운 교회에서의 낮섭과 어리둥절함이 채가 시기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기간인 2008년 3월 19일에 받게 되었다. 그리곤 1년이 흘렀고, 2009년 3월말에 우연히 CT 상에서 왼쪽다리가 동맥혈관 없이 수십년을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만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검사결과를 보러 갔다가 갑자기 잡혀진 수술날짜가 또 고난주간이었다. 올해는 무사히 넘어가주겠지 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도 무시된 채,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새벽기도회에 개근함으로 사모로서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나의 자만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꺾어 버리셨다. 5~6시간 동안 엄청난 피를 쏟고(나중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병명은 소장궤양이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만 했다. 중환자실에선 옆 침대에 나보다 훨씬 젊은 남자가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마치 라디오로 중계방송 듣는 것처럼 세세하게 들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수치를 무릅쓰고 간호사에게 "변기 주세요!"라는 한마디 말 밖에 없었다.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가족들도 면회시간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고 2박3일 동안 내가 생각할 땀 몇평한테 수혈을 받으며 산소호흡기를 꼴은 채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처음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다. 3년 연속 우승이라면 몰라도 3년 연속 특새에 맞춰 병원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내 자신이 창피했고, 너무 싫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나의 우울함에 한몫을 했다. 작은 아이 중학교 입학식에도 참석 못하는 못난 엄마가 되어 버렸다. 아이 챙기랴, 청소하랴, 빨래하랴, ~, ~, ~, 설교준비하랴 피곤해 어쩔 줄 모르는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집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여 다른 일에 일체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아내이고 싶었는데 완벽한 커녕 방해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몸이 쾅쾅아지기 시작한 둘째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큰 죄가 있나 하고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다. 일부러 계획을 한 들 3년 연속으로 특별한 때에 그

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로서는 그분의 때가 되어, 그 분이 원하시는 장소에 온 것뿐이었다. 그 장소가 우리 인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병원이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엔 이미 예정되어 있었나 보다. 안동교회가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씩이나 새벽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분명 마귀들에겐 비상이 걸렸을 게다. 하나님은 쉽게 넘어지고, 금방 포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느라 나를 사용하셨던 것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만드셨고,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게 하셨으니까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나를 3년 연속 입원 기록을 세우게 하셨을 이유가 없지 않으셨을까?!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도 무지하게 사랑하셨다. 수술과 입원의 과정 속에서 난 여호와와의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하였다. 그분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으셨다.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나의 상황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요즘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울컥해진다.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간절하다. 아버님께서 이 부실한 며느리를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까? “잘~ 됐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내년엔 사양해도 될까요????????!!!!

중고등부소식

최진오 전도사

4월은 참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남과 동시에 부활주일이 있었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중간고사라는 압박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공부에 여념이 없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주일날 안동교회 로비에서 계란을 나누어 주었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2010년 중고등부에 부흥을 주었던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얼마나 명량하고 활달한지 중1 친구들이 없

으면 중고등부가 썰렁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과 서먹해 친구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지 않으면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모두 하나하나 다 소중한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의 미래를 이끌 친구들이라 그런지 더욱 애착이 갑니다. 끼도 많습시다. 넘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중고등부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지금은 감도 오지 않는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매주일 이 친구들이 중고등부 예배실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끼, 열정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압니다. 이들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신록의 5월이 다가올 즈음, 중고등부의 신록을 먼저 소개해 봤습니다.

부활절 계란 트리

류화숙 전도사

아동부에서는 이번 부활절에 특별한 행사를 해보았어요. 계란 모형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계란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성껏 준비한 부활스티커를 붙이고, 숨을 붙여 천사 날개를 달고 사인펜으로 예쁜 그림을 그려서 자기만의 작품을 근사하게 만들었지요. 또 조그마한 축하 카드를 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쁜 마음을 표현하여 나무 구석구석에 달아 놓았지요. 어떤 선생님은 예쁜 등지를 만들어 계란을 올려놓기도 하고 부활의 꽃 흰 백합을 나무 꼭대기에 걸어 너무나 예쁜 부활 트리가 완성 되었습니다. 'Happy Easter!' 가 새겨진 전도용 계란을 들고 정독 도서관 근처를 오르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되심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지요. 그 조그만 손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며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하던지... 노방 전도가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 너무나 예쁘게 변한 계란 트리를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탄성을 지르던 아이들! 비록 새벽기도가 끝나던 마지막 날,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지친 몸과 내려앉는 눈꺼풀을 달래가며 힘겹게 만든 트리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과 탄성에 모든 피로가 확 날아가 버리던걸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설레임입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아시아 교회, 예언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이하 CCA,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제13차 총회가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랜드시즌호텔에서 열려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폐막했다. 회원교회 참가단과 각국 교회 연합기관 대표 등 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주제를 '예언자적 소명, 화해, 치유'에 맞추고, 본부를 치앙마이(태국)로 이전한 지난 2005년 이후 사역을 돌아보는 한편 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칭취했다. 또한 이란과 부탄 교회가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회원국은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00년 토모혼과 2005년 치앙마이 총회가 '생명'과 '평화'를 중점적으로 조망했던데 비해 이번 총회는 아시아의 인종 갈등(스리랑카), 종교간 갈등(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념 갈등(한국), 국가간 갈등(중국-대만), 원주민과 소수민족의 갈등(호주, 뉴질랜드), 정치적 갈등(필리핀) 등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화해와 치유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10월 말 임기를 마치는 프라왓 총무는 △강제 이주 △담합에 의한 독점 △기후변화와 환경 △핵 위협과 군사력 증강 △인권 침해 등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위기상황을 전하고 이러한 고통의 피해자 대부분이 무고한 시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임을 강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CCA 중앙위원회에서 후임 총무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헨리엣 후타바랏레방 목사(Henriette Hutabarat Lebang)도 1957년 첫 모임을 가진 이후 50년을 넘어선 CCA가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성숙함을 지녔는지를 물으며, 사회와 교회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후 5년 간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앞두고 CCA 정관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공동의장을 배출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교회는 필리핀교회의 정관개정 요청이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아쉽게도 2015년을 기약하게 됐다. 공동의장은 캄보디아의 래스메이(Ms. Van Arun

Rasmay), 필리핀의 레이예스(Rev. Rex Reyes), 인도네시아의 엔가폰(Ms. Retno Ngapon), 네팔의 로카야(Dr. KB Rokaya) 씨가 인준됐으며, 회계는 방글라데시의 칼마칼(Mr. Augustine Karmakar) 씨가 선임됐다. CCA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교회들에 감사를 표했으며 아시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빈곤, 폭력, 불평등, 대화의 단절 등 여러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는 본교단 총대 인명진목사(갈릴리교회), 김경인 목사(총회 기획국장), 이훈희 씨(청년·장신대)를 비롯해 CCA 회원 교단 총대 및 읍저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폭력에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올해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세계평화를 위해 진행한 '폭력 극복 10년(Decade to Overcome Violence) 운동'의 마지막 해다. 비록 이 운동이 진행된 지난 10년간 9·11테러(2001년 9월1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10월 7일 발발), 이라크 전쟁(2003년 3월 20일 발발) 등 거대 폭력 사태가 다수 발생했지만 세계교회가 평화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폭력 극복 10년 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폭력 극복 10년 운동'은 지난 1998년 12월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모인 WCC 제8차 총회에서 제창됐다. 총회 대표들은 폭력극복 10년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교회들과 함께 비폭력과 화해를 위해 일하고 비폭력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 총회는 가장 폭력적이었던 세기를 마감하는 총회로 평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새롭게 요구되던 때였다.

WCC는 '폭력 극복 10년 운동' 선포와 함께 교회, 에큐메니칼 기구,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것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폭력 문제를 찾아내고 평화, 정의, 화해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WCC는 △폭력의 구조적, 문화적 뿌리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 진행 △폭력을 자행하는 자들과 폭력의 도구에 저항하는 캠페인 전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소개 △혁신적인 예배의식, 성경공부, 신학적 논의 등의 개

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또한, 이 운동은 유엔의 세계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 10년(United Nations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캠페인과의 협력 진행되기도 했다.

이 운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폭력의 종식을 위해 각 분야별로 자료 조사 및 극복과제 제시, 극복 방법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WCC는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가들간의 폭력 △국가 안에서의 폭력 △지역 공동체에서의 폭력 △가족 내에서의 폭력 △교회 내에서의 폭력 극복 △성폭행 △사회 경제적 폭력 △경제적, 정치적 봉쇄의 결과로 인한 폭력 △청년들간의 폭력 △종교적, 문화적 행위와 관련된 폭력 △사법제도 안에서의 폭력 △피조물에 대한 폭력 극복 △인종 차별주의와 인종 혐오주의로 인한 폭력 등의 극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운동의 주요 초점을 정할 당시 가정과 가족, 청년 등 너무 일반적인 폭력에까지 영역을 확대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간, 지정학적 폭력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폭력 극복 10년 운동'은 매년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의 폭력 구조 및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실시, 평화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2001년부터 시작된 폭력극복 10년 운동은 그 이듬해인 2002년부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수단, 미국,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태평양의 제도들, 지중해, 아프리카 등 매년 한 지역에 집중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또한, 올해로 모든 운동을 마친 후 2011년 5월 17일~25일에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국제 에큐메니칼 평화 회의(International Ecumenical Peace Convocation · IEPC)를 통해 향후 평화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사례 개발 및 소개, 평화 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제 에큐메니칼 평화 회의는 폭력극복 10년 운동의 수확물을 추수하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교회와 개인에게 비폭력과 평화, 정의에의 헌신을 새롭게 각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WCC는 '폭력 극복 10년 운동'을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자료 조사 및 사업 진척을 위해 '리빙 레터스(Living Letters)'라는 소그룹 방문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리빙 레터스'는 각 나라를 방문, 그들의 상황을 듣고 배우고,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이들은 폭력극복을 위한 지식을 나누며 교회와 협의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파와 교간, 학생과 청년들의 연합을 도와왔다. 원래 리빙 레터스는 지난 1988년에서 1998년까지 진행된 '여성들과의 유대에 있어서의 교회들의 에큐메니컬 10년(Churches in Solidarity with Women)' 운동 당시 75개의 팀이 조직돼 6백50개의 공동체를 방문한 바 있다. 폭력극복 10년 운동시에도 이들의 활약은 이어져 폭력 방지, 평화 건설, 정의와 비폭력을 위한 이슈들을 확산시켰으며 이들이 수집한 자료들과 행동의 결과들은 오는 2011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리는 국제 에큐메니칼 평화 회의에서 전세계 평화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또한, WCC는 오는 9월21일을 평화를 위한 국제 기도일로 정하고 세계 각국의 교회와 교인들이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폭력극복 10년 운동'은 평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WCC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의 에큐메니칼 동행 프로그램, 신앙과 직제의 연구 '평화 양육, 폭력 극복', 면책·진리·정의·화합 프로그램, WCC 평화 건설과 무장해제 프로그램, '도시에 평화를' 네트워크, 휴대용 무기 확산 억제 운동, 여성과 아동 폭력 극복 프로그램, 종교간 관계형성과 대화를 위한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중 휴대용 무기 확산 억제 운동은 전쟁, 도시 폭력 등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명의 희생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진행됐다.

1998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무력 분쟁으로 2백만 명의 어린이가 희생됐으며, 4~5백만 명의 어린이가 불구가 됐고, 천 2백만은 집을 잃었다. 이중 약 1백만 명은 고아가 됐고, 약 1천만명의 어린이는 정신적인 충격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WCC 하라레 총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무력 분쟁에 소년병을 이용하는 것은 인도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년병들을 죽음과 부상의 위험에서 건져내고 오염된 폭력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에 평화를(Peace to the City)' 프로그램은 인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삶과 생존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은 1997년 리오 데 자네이로(브라질), 벨파스트(북아일랜드), 보스턴(미국), 콜롬보(스리랑카), 더반(남아공), 킹스턴(자메이카), 수바(피지) 등에서 시작됐는데

이 캠페인은 도시에 존재하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폭력 자체보다는 공동체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 폭력과 갈등으로 찢겨진 공동체들을 화해시키고 교류의 다리를 놓는, 즉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

그러나 WCC의 폭력 극복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전문가들에게 효과와 운동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폭력극복 10년 운동이 출범할 당시 이 운동의 출범에 관여했던 영남신대 박성원교수는 "폭력극복 10년 운동을 시작할 당시 경제세계화가 깊이 진행되고 있었고 문명간의 충돌도 심했는데 이 운동의 포커스가 너무 일반적인 것에 맞춰져 지칭학적인, 지역문화적인 거대 폭력을 제대로 못 다룬 측면이 있다"며 "1998년 운동을 제창할 때 향후 10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운동의 틀 자체가 너무 작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힘의 논리에 의한 폭력과 가난한 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 환경 폭력 등이 많았지만 폭력극복 10년 운동이 이 스케일을 받기에는 너무 작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그는 "평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응답이 많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 또한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폭력극복 10년 운동은 세계교회가 계속해서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리고 평화 문제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다"며 "내년에 열리는 자메이카 킹스톤 회의에서는 WCC가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정치 경제 문화 생태 부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언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사로운 봄햇살 머금고 가신 목사님이 그리웁니다"

한 세기 가까운 삶을 살았던 추양(秋陽) 한경직목사는 길고도 굵은 흔적들을 남겼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의 삶을 통해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 청빈과 겸손으로 대변되는 한경직목사,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우리가 다시 한경직목사를 기념하는 것은 단지 시대의 사표(師表)였던 그가 그리워서만도 아니고, 그의 족적을 되짚어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추양이 남긴 유산들 속에는 여전히 우리들이 곱씹어 봐야 할 많은 것들과, 교

훈으로 삼아야 할 편편(片鱗)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다. 본보는 4월 한 달 동안 추양의 삶, 목회자로서의 신앙과 신학, 목회, 선교와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신앙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 시인 고훈목사는 추양의 영전에 바친 시에서 그를 이렇게 추억했다. 추양의 가장 큰 이미지를 말하라면 바로 '가지지 않았던 삶'이 아닐까. 고훈목사의 시구에는 그가 지나온 삶의 겸손함이 소박하게 담겨져 있다. 하지만 한경직목사의 청빈하고도 겸손한 삶 위에는 목회자로서 강직했던 발걸음이 더욱 깊게 드리워져 있다. 본보 1964년 11월 14일자부터 4주간 게재된 한경직목사의 '한국 교역자의 자세'에 보면 그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뚜렷한 윤리의식을 가졌고, 말과 행동이 일치했었는지 엿볼 수 있다.

"무엇을 하겠다말고 '무엇이 되겠다'는 자세를 갖자.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영안의 '비전'을 보자"(11월 14일자) "강단은 연단이 아니라 성서반포로, 항상 목표가 있고 실제적인 내용, 교인생활의 세밀한 부분 파악하고, 확신과 성령에 넘치는 설교라야"(11월 21일자) "당회행정에 올바른 자세를 갖고 심방은 약한 집 먼저 찾길"(11월 28일) "교역자 자신은 뚜렷한 교회관을 갖고, 개교회는 상회와 긴밀한 연락이 필요하다"(12월 5일)

당시 4차례의 연계를 통해 추양은 목회자의 본분과 설교의 본질, 교회와 총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며, 급성장하던 한국교회 앞에 경종을 울렸다. 한 목사의 이 같은 일갈은 특별한 '사상'도 아니었고 원고청탁을 받아 급히 짜낸 '글'도 아니었다. 원고가 담고 있는 무게감이 남달라 보이는 것은 분명 원고지 속에 그의 삶이 솔직담백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평소 목회자들에게도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 당부했던 추양은 '성역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책에서도 "목사는 천국의 문지기로서 그 자신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건축가가 자기가 지으려는 집을 먼저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듯 교역자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계속 자기 성장에 매진하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라며, 목회자의 사명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장로들을 향해서도 "공정하게 교회를 다스리고 덕으로 교인들을 대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며 '교회평화'를 위해 자기를 이겨야 한다. 성경에 명시된 장로의 자격을 생활화하여 모든 교인

앞에 뗏목이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집사와 청년들을 향해서도 "법과 규율과 경우를 초월해 사랑과 화합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만한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모든 불의는 사랑으로 쫓아내라", "나라 사랑하는 참길을 주안에서 찾으라. 나라가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의를 취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각각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직목사는 분단이 곧 종식되고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는 '1980년대의 소망'을 주제로 한 한 대담에서 "80년대는 교회가 꼭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서 힘써야 해요. 그리고 제 예감이지만 80년대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겨져요"라며, 통일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일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만큼 추양은 그 전에 한반도의 복음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 말까지 2천만 명을 전도하자는 목표도 이즈음 세운 것이었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도 환경직목사는 올곧은 소신을 품고 있었고 생전에 수시로 이를 밝힌 바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추양은 갈갈이 분열된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아래 하나로 연합하든지, 아니면 제3의 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 모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81년 4월 5일 열렸던 한국장로교협의회 창립예배에서는 교회연합의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당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추양은 "교회의 일치와 통일은 확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한국의 갈라진 장로교단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라는 에큐메니칼의 기본정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교회의 발전을 견인했던 환경직목사는 2000년 4월 19일, 9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추양이 참석했던 마지막 공식일정은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자신의 98회 생일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그의 마지막 외출로 남아있다. 다시 열어본 본보 1999년 2월 6일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겨져 있다. "휠체어에 의지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한 목사는 예배 끝까지 참석, 축하하기 위해 온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을 나누는데 조금의 인색함도 없었던 추양 환경직목사는 생의 종착점을 향해 바빠 달려가던 그 순간에도 얼마남지 않은 사랑의 기운을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려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래도 신앙의 후손들이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그의 숨결대신 그가 남긴 여러 유산들이 있기 때문이라. 추양이 떠난 바로 그 4월, 그가 남긴 많은 신앙의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느낄 수 없는 추양의 손길과 삶의 모습들이 그리운 것은 신앙의 후배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인 듯 하다.

신의주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환경직목사는 공산당을 피해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입성해 1945년 12월 2일 27명이 모인 가운데 영락교회를 세운다. 당시 교회명은 베다니 교회로 초창기부터 피난민들과 만주를 비롯해 일본에 징용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세를 탔다. 추양의 목회방침은 늘 사람을 섬기는 데 있었다. 그런 철학 탓이었을까.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했고 1949년에 들어서면서 교인이 6천명을 넘어섰고 현재의 석조전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전쟁을 겪고 교인들이 다시 모이는 혼란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영락교회는 꾸준히 성장했다. 한국교회의 중심에 우뚝 선 영락교회의 발전사는 곧 한국교회의 발전사와 맞닿아 있고 이를 이끈 것이 바로 환경직목사였다. 개척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교회를 개척했고 이후 교회의 성장과 비례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일도 영락교회의 몫이었다. 이와 동시에 환경직목사는 교인들에게 '전도'를 강조했다. 역사적으로도 영락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인정받았던 것은 '전도하는 교회'를 지향했던 베다니 전도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금도 많은 수의 영락교회 교인들은 짙은 평안도 사투리로 설교하던 추양과 '아버지...'라는 간절함 부름으로 시작하던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떠났고 우리는 기념한다. 그의 삶이 보여준 많은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지도인 셈이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10년 5월호 · 통권 제202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안 재 훈

발행일: 2010년 5월 2일